

긴급조치 9호에서 방탄소년단까지: 거대한 나비효과 이야기*

김정수**

| 국문요약 |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세계적인 인기는 오늘날 글로벌 문화시장에서 K-Pop의 경이로운 성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논문은 “K-Pop의 놀라운 성공은 1975년 긴급조치 9호가 촉발시킨 나비효과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나비효과’ 개념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이 인과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1975년에 발동되었던 긴급조치 9호의 나비효과는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작용하였다. 하나는 한국 대중음악계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정보통신혁명이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결합되어 2000년대 이후 K-Pop의 글로벌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핵심어: K-Pop, 방탄소년단, 긴급조치 9호, 나비효과, 정보통신혁명

* 이 논문은 2018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제71차 콜로키움(2019/02/12)에서 발표되었던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coramdeo@hanyang.ac.kr

I. 들어가는 말

“방탄소년단(BTS)은 21세기의 비틀즈다”(BBC News 18/10/09). 영국 BBC가 2018년 10월 9일 BTS의 영국 공연을 소개한 기사의 첫 줄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도 10월 10일 자 커버스토리로 BTS를 다루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거물급 보이 밴드”라고 극찬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순회공연에서는 수십만 장의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무려 32억 회가 넘었다. BTS의 팬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트위터 팔로워는 약 2,000만 명, 팬클럽 ‘아미(Army)’의 회원 수는 약 1,400만 명이나 된다. 2019년 4월에 발매된 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는 즉시 ‘빌보드 200’ 1위에 오름으로써 11개월 간 3개의 앨범이 연속해서 빌보드 앨범차트 1위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는 비틀즈의 기록을 앞선 것일 정도로 대단한 기록이다. BTS의 세계적 성공은 오늘날 K-Pop으로 불리는 한국 대중음악의 눈부신 발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 음악시장의 아주 작은 변방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꿈같은 일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날 글로벌 문화시장에서 K-Pop의 부상이 경이로운 현상으로 주목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설이 있다. 혹자는 한국 대중음악의 탈 로컬과 글로벌화를, 또 다른 혹자는 한국 연예계 특유의 매니지먼트 및 연습생 시스템을 주요인으로 제시한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K-Pop의 성공을 초래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그런데 여타의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대중음악 역시 역사의 산물이다. 오늘날 한국 대중음악의 지형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궤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격변기였으며 특히 대중음악은 그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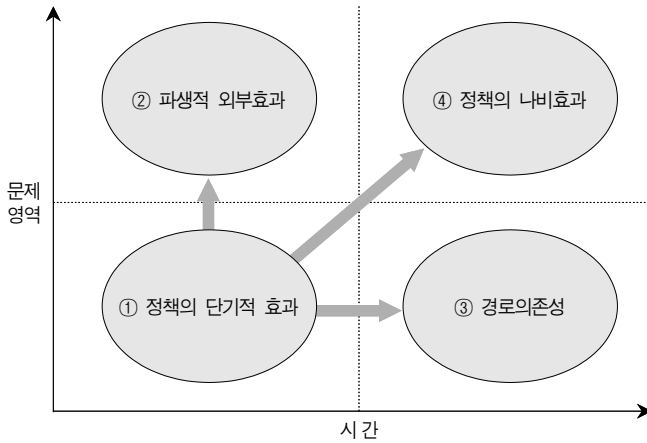
오늘날 K-Pop이 한류 붐의 선봉장으로 경이로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

던 역사적 배경에는 1975년 발표된 긴급조치 9호라는 사건이 있었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반대를 억압하기 위한 종합세트와도 같은 정책이었다. 당연히도 대중음악 자체를 염두에 둔 문화정책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긴급조치 9호는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변화들을 격발시켰다. 그리고 비록 당시 위정자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향후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놓게 되었다. 이 논문은 “BTS로 상징되는 K-Pop의 놀라운 성공은 1975년 긴급조치 9호가 촉발시킨 나비효과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나비효과’ 개념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이 인과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정책은 원래 의도했던 문제의 해결과는 별개로 먼 훗날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정책의 나비효과’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오늘날 K-Pop이 이룩한 기적 같은 성공을 1975년 긴급조치 9호라는 정책의 나비효과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II. 정책의 나비효과

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이다(김정수 2016, 38). 하지만 어떤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전혀 다른 영역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라고 한다(Wolf 1988). 한편 한번 결정된 정책은 당초 문제된 상황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shadow of the past)”를 드리우며 미래의 선택을 제약하게 된다(Ikenberry 1988).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이를 제도의 지속성(institutional persistence)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Goldstein 1988; Thelen and Steinmo 1992).

그런데 정책의 효과와 관련하여 파생적 외부효과 및 과거의 그림자 개념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를 <그림 1>을 통해 설명하면 다



출처: 저자 작성

음과 같다. 우선 ①은 정책이 해결하고자 했던 당초 문제에 미친 단기적 효과(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를 의미한다. ②는 정책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영역에 미친 영향, 즉 파생적 외부효과를 의미한다. ③은 정책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나 당초의 문제 영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 즉 경로의존성을 의미한다. ④는 정책 시행 후 오랜 시간 뒤에, 그리고 원래의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지칭하는 학술적 개념은 없는 듯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를 ‘정책의 나비효과’라고 부르고자 한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 표현은 원래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Edward U. Lorenz 1972)가 기후예측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강조하려고 사용한 예시에서 유래되었다. 나비효과 개념의 핵심은 얼핏 사소하게 보이는 사건 하나가 나중에 시공간을 가로질러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데 있다. 혼돈이론(chaos theory)에서는 이를 ‘초기 조건에의 민감한 의존성(sensitive dependence on initial conditions)’이라고 한다(강준만 2015, 38). 초기의 사소한 변화가 결과적으로 전혀 예

측하지 못할 정도의 커다란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이다(최창현 2010, 88). 이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초기 사건과 나중에 발생한 사건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 인과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¹⁾

모든 요소들이 통제된 실험실과는 달리 현실세계의 사건들은 매우 복잡한 상호관계 속에 긴밀하거나 느슨하게 얽혀 있다. 이는 마치 포켓볼 게임의 당구공들과도 비슷하다. 당구대로 어떤 공을 타격하면 비단 처음 맞은 공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공들까지도 연쇄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더 멀리 있는 공들에게까지도 충격이 전달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면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원래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의 나비효과란 이처럼 정책과 효과가 시간과 공간 혹은 사안을 크게 가로질러 연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연계의 나비효과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나비효과 역시 일견 아무런 관계도 없는 두 사건이 실상은 긴밀한 인과관계로 얽여 있음을 뜻한다. 이 인과관계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장기간에 걸쳐 길고도 복잡한 사슬처럼 연결되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떤 사회현상을 정책의 나비효과 관점에서 설명하려면 각각의 연계고리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면서 마침내 최종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추적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던 긴급조치 9호와 BTS/K-Pop는 그 성격은 물론 시기적으로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데 이영미(2016, 154)는, 비록 이 논문의 핵심논제와는 좀 다르지만, “유신 말기의 폭압적인 상황은 ... 작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이후 한국 [대중]예술사에 큰 영향을 남겼다”고 지적하였다. 서로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었을 수 있을까? 긴급조치 9호의 나비효과는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작용하였다. 하나는 한국 대중음악계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었

1) 이처럼 우연한 사건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 전개에는 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Arthur 1988).

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정보통신혁명이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결합되어 2000년대 이후 K-Pop의 글로벌 성공이 빚어지게 되었다.

III. 긴급조치 9호 이후 한국 대중음악계의 판도

긴급조치 9호는 1970년대 청년 저항문화의 기수였던 포크와 록 음악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의 신호탄이었다. 포크와 록이 정부의 철퇴를 맞고 퇴출된 빈자리는 공안당국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댄스 음악이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실력 있는 스트리트 댄스들이 대거 가요계에 진출하면서 오늘날 K-Pop의 원조격인 댄스 그룹의 천하가 열리게 되었다.

1.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형성과 발전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대중음악이 출현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였다.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폭스트로트리는 춤곡 스타일이 일본에 수입되어 엔카(演歌)로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이 엔카가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면서 “트로트 혹은 뽕짝이라고 부르는 장르가 한국 대중음악사상 최초의 메인스트림 장르로 자리잡게” 된다(강헌 2015, 325).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을 휩쓸게 된다. 특히 미군방송과 미8군 쇼 무대를 통해 미국의 다양한 팝음악이 한국에 소개되었다(한지수 2009). 그리하여 1960년대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트로트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스탠다드 팝이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양대 축을 이루게 된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히피문화의 영향으로 기성세대의 문화와 트로트 음악에 대항하는 새로운 청년문화가 힘차게 태동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통기타 중심의 포크(Folk)와 그룹사운드 중심의 록(Rock) 음악이 있었다(박찬호 2009, 531; 염대형 2018). 특히 ‘한국 록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신중현은

소위 신중현 사단이라고 불렸던 여러 가수들(김추자, 장현, 필시스터즈, 김정미 등)과 함께 한국 록 음악의 황금기를 열어가고 있었다.

2. 1975년 대중음악계에 대한 연쇄 탄압

1975년 5월 13일 정치적 목적으로 발동되었던 긴급조치 9호는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탄압으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긴급조치 9호의 1조 나항 및 2조를 근거로 ‘퇴폐적인 대중예술이 국가의 안전수호와 공공질서의 확립, 국력배양과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중음악에 대한 극심한 통제를 연쇄적으로 시행한다.²⁾ 먼저 열흘 뒤인 5월 23일 <방송정화 실천요강>이 발표되었다. 그중 음악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다(양삼석 2013, 237).

- 실천요강 중 ② 음악프로그램은 퇴폐적이거나 허무적인 것을 배제하고 밝고 아름다운 것을 적극 반영하며, 세트·의상·연출 등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정적이거나 사치의 낭비적인 요소를 추방하여 회망적이고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에 기여한다
- 방송금지사항 중 ① 국론을 분열케 하거나 사회의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용, ⑤ 불건전한 남녀관계와 선정적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퇴폐풍조를 조장하는 내용, ⑦ 국민의 생활윤리를 해치거나 청소년 선도를 그릇되게 하는 내용

곧이어 6월 5일 문화공보부는 가요, 연극, 영화, 쇼 등 대중예술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공연활동의 정화대책>을 발표한다(김은경 2010, 207). 공연물, 음반, 가요 등을 통한 퇴폐풍조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정신을 이완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때 시정되어야 할 공연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명

2) 국가기록원, “금기와 통제 그리고 자율: 시대별 금기와 자율(1960~1970년대),” <http://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taboo1970.do>(최종검색일: 2019/05/25).

시되었다.³⁾

- ① 국가의 안전수호와 공공질서의 확립에 반하는 공연물
- ② 국력 배양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해하는 공연물(사치 낭비적인 풍조 조성, 소비성 유행 자극, 배금주의·이기주의 고취, 자포자기적인 향락심(向樂心) 선동)
- ③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공연물
- ④ 사회 기강과 윤리를 해하는 퇴폐적인 공연물(퇴폐적 언동, 음악 작동, 의상 등, 장발 연예인의 공연행위, 흥행 이득만을 목적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저속취향에 영합하는 것 등)

그리고 이 기준들에 의거하여 당시까지 발표된 모든 대중가요를 재심의 하여 <금지곡> 지정 및 음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예륜)는 모든 가요에 대한 소급 심의를 통해 총 222곡(1차 130곡, 2차 44곡, 3차 48곡)을 금지곡 대상으로 선정하여 문화공보부에 보고한다. 이를 포함하여 각 방송사 등 여러 기관에 의해 1975년 12월까지 총 440여 곡이 방송/발표/연주/음반판매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1976년 9월 30일까지 무려 771개나 되는 노래가 금지곡 판정을 받았다.⁴⁾ 당시 예륜의 심의기준은 다음과 같았다(문옥배 2004, 134).

- ① 국가안보와 국민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 ② 외래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 ③ 패배·자학·비관적인 내용
- ④ 선정·퇴폐적인 것

3) 국가기록원, “금지곡과 통제 그리고 자율: 주요이슈－대중가요,” <http://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kindOfTaboo04.do>(최종검색일: 2019/05/25).

4) 금지곡에 대한 첫 번째 해금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1987년 8월 7일 문화공보부가 6·29 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요금지곡 해금지침>을 발표했을 때였다. 곧이어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방송금지곡 499곡을 해제시킨다(양삼석 2012, 239).

한편 1975년 말 소위 ‘대마초 파동’은 당시 가요계를 거의 초토화시켰던 또 하나의 거대한 태풍이었다. 금지곡의 방송·판매 금지조치가 히트가요에 대한 ‘물적 퇴출’이었다면 대마초 파동은 톱스타에 대한 ‘인적 퇴출’이었다.⁵⁾ 12월 3일 서울지검은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가수 윤희주, 이종용, 이장희를 구속하였다. 그 후 1977년까지 신중현, 김추자, 조용필 등 137명의 톱스타들이 구속·입건되면서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대마초 파동 사건은 특별히 포크와 록 가수들에게 내려진 철퇴였다. 긴급조치 9호 이후 박정희는 “사회기강을 해치고 국민정신을 쪼먹는 저속하고 퇴폐적인 일부 대중예술을 과감히 정화해 나가겠다”고 선포하였다(송현민 2013, 275). 본디 포크와 록은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저항정신이 강한 음악이다. 따라서 박정희에게 있어서 이들은 “서구의 저질 퇴폐문화를 양산”하고 반체제적 성향이 강한 대표적인 두 부류였다(이혜숙·손우석 2003, 86). 이 때문에 대마초 파동은 이들을 정조준하여 자행된 “유신정권의 분서갱유”였다는 해석도 나온다(김형찬 2015, 527).

1970년대 중반까지 기세 좋게 전성기를 누리던 포크와 록은 긴급조치 9호 이후 사실상 강제 퇴출되었다(염대형 2018). 대다수 톱스타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가요계는 한동안 “진공상태”(선성원 1993, 102)였으며 그야말로 “무주공산”(김수경 2011)의 시대가 되었다. 정부의 탄압을 피해 살아남은 가수들은 청년문화 진영을 떠나 기성 가요계에 합류하는 식으로 변신을 꾀하였다. 포크 음악은 예전의 이지리스닝과 결합하여 세련되게 “속류화”되면서 양적 확산이 이루어졌다(이영미 1998, 243). 한편 록 음악은 기성세대의 트로트와 결합하여 대중친화적인 모습으로 순화된다. 일렉트릭 기타와 드럼이 주도하는 록 스타일 연주에 트로트적 선율과 쿵작거리는 리듬을 결합하여 소위 ‘트로트 고고리’는 새로운 양식의 음악으로 시장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김수경 2011). 이러한 당시 상황을 이영미(1998, 238)는 “포크의 변질”과 “록의 투항”이라고 규정짓는다. 1970년대 한국의 대중

5) 김편의 음악&라디오, “1975년 1: 록-포크 음악을 중심으로,” <https://blog.naver.com/kimkwmy/220820963003>(최종검색일: 2019/05/25).

음악은 긴급조치 9호로 인해 그 저항성과 야성이 완전히 거세당해 버렸다.

3. 1980년대 이후 한국 대중음악계의 재편

신군부의 등장으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던 1980년대 대중음악계에는 전혀 새로운 생태계가 펼쳐진다. 포크와 록이 정부의 철퇴를 맞고 사라져버린 무대에 이제 댄스 음악과 발라드⁶⁾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른 것이다(김현정 2007; 이충상 2013; 염대형 2018). 이들은 가사의 내용도 사회적 메시지나 저항정신이 제거된 사랑타령 혹은 일상의 소소한 감상표현 일색이었다. 특히 댄스 음악의 경우, 중요한 것은 그저 흥겹게 춤을 추는 것일 뿐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의식 따위는 애당초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김정수 1999, 207). 과거 포크나 록과는 달리 댄스 음악은 군사정권에게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는 장르였기에 규제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다(김정수 2002). 여기에 1982년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소위 3S(Screen, Sports, Sex) 정책의 영향으로 카바레,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들이 성행하게 된 것도 댄스 음악 확산의 한 요인이 되었다(이혜숙·손우석 2003, 159). 그리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래보다는 춤을 앞세운 김원선, 박남정, 소방차 등 댄서 출신 가수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다. 아울러 ‘인순이와 리듬터치’를 시작으로 단순한 안무 이상의 전문적 춤꾼인 ‘스트리트 댄서’ 혹은 ‘백댄서’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천창훈 2003, 40-41). 이렇게 한국 가요계를 점령하기 시작한 댄스 뮤지션들은 훗날 K-Pop 아이돌 그룹의 씨앗이 되었다.

1992년은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리나라 가요계와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일대 혁명을 일으킨 해로 기록된다. 원래 록 음악에 심취했었던 서태지는 1988년부터 신중현의 아들 신대철이 이끄는 록 밴드 ‘시나위’의 베이스 주자로 활동했다(김진 2008, 9). 그러나 1990년 공연실적 후 팀이 해체되자 집에서 컴퓨터 미디(MIDI: Musical Instrument

6)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서 ‘발라드’란 용어는 서양에서의 본래 어원과는 무관하게 “느리고 선율적인 사랑노래”라는 뜻으로 넓게 쓰이고 있다(이영미 1998, 270).

Digital Interface)로 혼자 곡을 만들고 녹음작업도 하였다. 당시 댄스 음악에 흥미를 느꼈던 그는 시퀀서와 샘플러를 통해 랩과 힙합 스타일의 곡들을 주로 만들어나갔다. 9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던 〈난 알아요〉 역시 이때 탄생한 곡이었다(이혜숙·손우석 2003, 264). 그리고 당시 이미 실력과 스트리트 댄서로 이름을 날리던 양현석으로부터 힙합 노래에 맞는 춤을 배우다가 같이 팀을 이루기로 한다. 양현석은 박남정의 백댄서로 같이 활동했었던 또 다른 춤꾼 이주노를 추가로 영입한다. 양현석은 훗날 ‘YG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여 K-Pop의 대표주자가 된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전설은 이렇게 록 키드와 스트리트 댄서들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힙합과 댄스 음악이 우리나라 가요계의 주류로 올라서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김상우 2012, 178).

서태지와 아이들에 의해 촉발된 ‘신세대 댄스가요’는 1990년대 한국 대중음악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이규탁 2016, 54). 서태지를 벤치마킹하여 랩과 댄스로 무장한 수많은 댄스 가수들이 백가쟁명 식으로 경쟁하며 댄스 음악의 춘추전국시대를 펼치게 된 것이다. 특히 1996년 데뷔했던 H.O.T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끌며 한류 붐을 촉발시켰다. H.O.T는 SM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만들어진 댄스 그룹이었다. H.O.T의 제반 특성 및 데뷔 과정은 앞의 II절에서 설명한 K-Pop 그룹의 일반적인 속성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후 등장한 수많은 남녀 아이돌 그룹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처럼 서태지와 아이들 및 H.O.T는 오늘날 BTS를 비롯한 K-Pop 아이돌 그룹의 원조이자 프로토타입이 되었다.

4. 1990년대 한국 음악시장의 특징

1990년대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의 지형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계 자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KBS 가요톱텐의 1위 가수들을 분석한 자료이다(뉴스젤리 14/11/18). 이 기간 동안 1위에 올랐던 총 358곡 중 절반인 173곡이 댄스 음악이었다. 사실 90년대 초반

까지는 신승훈, 이상우, 이현우 등 발라드 가수들이 1위를 독식하곤 했다. 그러나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이후에는 H.O.T, 젝스키스, 룰라, 김건모, 박미경, DJ DOC, 현진영, 터보, 지누션 등 댄스 가수들의 곡이 주로 정상을 차지하였다. 트로트의 경우, 1991년에는 댄스 음악보다 1위 횟수가 많았지만 점차 감소되어 1995년 이후로는 1위를 기록한 적인 단 한 번도 없었다.

두 번째 자료는 음악 청취자들의 기호 변화에 관한 것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FM 라디오의 음악 프로그램은 서양의 팝송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강현 2015, 91). 당시만 해도 가요는 음악 좀 듣는다는 젊은이들에게는 외면당하기 일쑤일 정도로 팝송에 비해 한참 수준 낮은 음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국산 댄스 음악이 부상하면서 마침내 가요는 팝송을 밀어내기 시작했다(강현 1998; 양성희 1998; 이경희 1998; 김정수 1999; 윤재상 2018). <표 1>은 1994년 6월에 조사된 라디오 프로그램의 장르별 선호도를 비교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전 연령대에서 팝송보다 국내가요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음악시장에서 공연 티켓 및 음반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사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은 물론 락카페나 무도장에서도 팝송 대신 국내 가요 위주로 선곡이 바뀌었다. 공연 티켓 판매의 경우 매우 흥미로운 비교사례가 있다. 세계적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의

<표 1>

연령대별 라디오 기호 프로그램(199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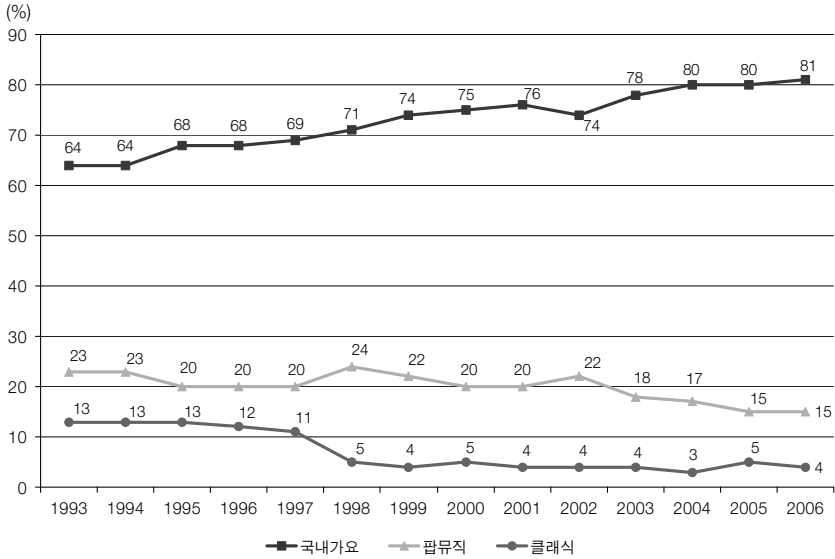
연령대	클래식	팝송	국내가요	국악
15~19세	3.6	31.0	56.3	-
20~29세	6.2	25.2	44.5	0.2
30~39세	6.2	12.4	23.6	0.5
40~49세	3.3	7.6	16.6	-
50~59세	5.3	3.2	24.2	-
60세 이상	1.6	1.6	11.3	8.1

출처: 김휴중(1997, 39)

www.kci.go.kr

〈그림 2〉

음반 장르별 시장점유율 변화 추세



출처: 문화관광부(2001; 2003), 문화체육관광부(2007)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친 내한 공연은 티켓도 다 안 팔리고 초청 기획사는 부도가 났었다. 하지만 H.O.T나 god의 공연에는 수만 장의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였다. 또한 〈그림 2〉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가요와 팝송의 음반시장 점유율 추세를 기록한 것이다. 1993년 23%였던 팝송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15%까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가요는 64%에서 81%로 크게 증가하였다.

5. 2000년대 K-Pop의 본격적인 등장과 BTS의 탄생

서태지와 아이들 및 H.O.T의 성공으로 달아오른 한국 대중음악시장에는 댄스 뮤지션을 양성하려는 기획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된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SM, YG,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Big 3' 기획사로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굳히게 된다. 이들이 만들어낸 음악이 해외에서 'K-Pop'으로 불리기 시작하며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7) 이들은 경

쟁적으로 댄스 뮤직 위주의 아이돌 그룹들을 출시하면서 K-Pop의 글로벌 성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JYP에서 독립해 출범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배출한 BTS는 ‘제2의 비틀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먼저 K-Pop 기획사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SM 엔터테인먼트는 이수만에 의해 시작되었다. 1970년대 포크가수로 활약했던 이수만은 미국 유학 중 1981년 개국한 MTV를 접하면서 댄스 음악과 뮤직비디오에 자극받고 컴퓨터 기술과 음악을 융합한 새로운 음악을 꿈꾸게 된다. 귀국 후 1989년 ‘SM 기획’을 설립한 그는 10대 여학생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에 맞는 다섯 명의 고등학생들을 보컬, 랩, 댄스 각 파트별로 선발했다(김영아 2008, 165). 그리고 8개월의 맹훈련을 거친 후 1996년 9월 데뷔한 그룹이 바로 H.O.T였다. 그리고 이들은 그해 1월 31일 해체를 선언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뒤를 이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SM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그 후 S.E.S,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EXO, 레드벨벳, NCT 등의 정상급 아이돌 그룹들이 SM을 통해 잇달아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양현석이 세운 기획사이다. 양현석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이주노와 함께 이미 다운타운에서 유명했던 브레이크 댄서였다. 인순이의 백댄서팀이었던 리듬터치의 안무가 이성문이 1984년에 창단한 브레이크 댄스팀 ‘스파크’에서 프로 댄서로 활동하였다. 1989년 박남정의 백댄서팀 ‘프렌즈’에 이주노와 함께 합류하여 1992년까지 활동한다. 그리고 시나위 해체 후 힙합음악으로 전환한 서태지의 부탁으로 브레이크 댄스를 가르쳐주다가 이주노와 함께 팀을 이

7) 이수완(2016, 80)은 K-Pop을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대중음악 중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생산된 서구 음악 장르, 특히 힙합, R&B, 록, 일렉트로닉 음악이 가미된 댄스음악”이라고 규정한다. 2011년에는 빌보드에서도 ‘Korea K-Pop Hot 100’이라는 차트를 정식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는 International Music 분야에서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제공된 국가별 차트였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경우 그냥 ‘Japan Hot 100’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J-Pop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K-Pop이라는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뤼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하게 된다. 1996년 1월 31일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한 후 현기획을 세우고 후배 양성을 시작한다. 1997년에는 MF 기획으로 이름을 바꾸고 힙합그룹 지누션을 선보인 후 다음 해 원타임을 데뷔시키며 양군기획으로 법인 전환한다. 1999년 소속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일종의 프로젝트 팀인 YG Family가 좋은 평을 얻자 2001년 사명을 YG 엔터테인먼트로 바꾸게 된다. 그 후 빅뱅, 2NE1, 위너, 아이콘, 블랙핑크 등의 아이돌 톱스타들을 배출한다. 특히 2010년 YG에 합류한 싸이가 2012년에 발표한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K-Pop을 글로벌 음악시장에 각인시켰다.

JYP 역시 댄스 가수 출신인 박진영이 설립한 기획사이다. 대중문화 기자생활을 오래했던 오광수(2015)는 박진영을 “춤에 미쳐 인생 조진 녀석”이었다고 묘사한다.⁸⁾ 1980년대 후반 고교시절부터 이태원 클럽에 출근하러 다니며 했던 그는 당시 ‘고수 춤꾼’이었던 이주노나 양현석에게 브레이크 댄스를 배우겠다고 매달리던 “별난 녀석”이었다. 1992년 가수 김수철의 프로듀싱으로 그룹 ‘박진영과 신세대’로 데뷔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 후 김건모의 백댄서로 활동하면서 김건모의 소속사 라인기획의 작곡가 김형석으로부터 2~3년간 집중적으로 작곡과 프로듀싱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1994년 솔로로 발표한 〈날 떠나지마〉가 히트하면서 개성 강한 댄스 가수로 인정받게 된다. 1997년 태흥기획을 설립하고 프로듀싱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1999년 데뷔해 H.O.T, 젝스키스의 뒤를 이어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god가 바로 그의 첫 작품이다. 2001년 회사명을 JYP 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한 후 비, 원더걸스, 2PM, 미쓰에이, GOT7, 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 등의 아이돌 그룹들을 배출해낸다. 2004년에는 작곡가로서 미국 진출을 시도했었고, 2009년에는 원더걸스의 〈Nobody〉가 한국 가수 최초로 Billboard Hot 100 차트에 76위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BTS를 배출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05년 2월 1일 작곡가 겸

8) 오광수의 문화살림 블로그, “박진영, ‘춤에 미쳐 인생 조진 녀석,” <http://oks.khan.kr/79/>(최종검색일: 2019/05/25).

프로듀서 방시혁이 설립한 기획사이다. 1995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던 방시혁은 1997년 박진영에게 발탁되고 연이은 히트곡들을 내놓으면서 이름을 알리게 된다. JYP 수석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박진영으로부터 프로듀싱을 배운 방시혁은 2005년에 독립하게 된다. 초창기에는 JYP 연습생 출신 보컬 그룹 2AM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이어받아 활동하였다. 그리고 2010년 9월 포털사이트 다음과 함께 힙합 그룹 방탄소년단의 새 멤버를 모집하는 전국 오디션을 ‘힛잇(Hit It)’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 래퍼로 이미 멤버로 발탁되었던 리더 RM(본명 김남준) 외에 슈가(본명 민윤기), 진(본명 김석진), 제이홉(본명 정호석), 지민(본명 박지민), 뷔(본명 김태형), 정국(본명 전정국)의 7명으로 최종 멤버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약 3년간의 연습시간을 보낸 후 2013년 6월 싱글 앨범 《2 COOL 4 SKOOL》을 발매하며 공식 데뷔하게 되었다. 2017년 방시혁은 BTS를 세계적인 음악 그룹으로 만들어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2018년 5월에는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세계 음악시장을 움직이는 International Power Players 73인 중 음악제작 부문의 파워 플레이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IV. 긴급조치 9호, 제5공화국, 그리고 정보통신혁명

긴급조치 9호는 국민적 저항을 증폭시켜 결국 유신정권의 자멸을 초래한다. 극도의 정치적 혼란 속에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해 박정희 시대와는 차별되는 정책들을 수립한다. 특히 제5공화국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보화 정책은 향후 놀라운 정보통신혁명의 초석이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상화된 컴퓨터와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댄스 음악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K-Pop 아이돌 댄스그룹의 글로벌 성공에 일조하였다.

1. 긴급조치 9호와 10·26 사건

유신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탄압의 결정판이었던 긴급조치 9호는 한국사회에 “완벽한 침묵”을 강요하였다. 4년 6개월 동안 1,000명 이상의 무고한 전과자들이 만들어졌고 국민의 기본권이 극도로 억압되었다. 자신의 통치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을 용납지 않던 박정희는 1978년 7월 6일 제9대 대통령선거에 단독출마해 당선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간접선거방식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체육관 선거’라는 비아냥이 퍼지기도 했다. 민심이반 분위기 속에 치러진 12월 총선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보다 1.1% 더 많은 표를 얻으며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79년 6월에는 ‘선명 야당’, ‘민주 회복’을 구호로 내건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로 선출된다.

8월 9일에는 1970년대 국내 최대의 가발수출업체였던 <YH무역>의 여성노동자 172명이 신민당 당사에서 폐업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게 된다. 경찰은 신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11일 새벽 2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모두 강제연행하였다. 무자비한 진압과정에서 옥상에 올라갔던 노동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한다. 당사에서 저항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로 자택으로 끌려갔던 김영삼 총재는 9월 16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다. 그리고 이를 문제삼은 공화당 의원들은 10월 4일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현직 야당 총재인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킨다.

이 일로 김영삼의 지지기반이었던 경남지역의 민심이 크게 동요하게 되면서 ‘부마 민주항쟁’이 촉발된다(김경호 2000; 조정관 2009). 10월 16~17일 부산대생들과 시민들이 가두시위를 벌이자 정부는 18일 0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2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투입해 시위진압에 나선다. 그러나 시위는 마산으로 번져 마산대, 경남대 학생들을 선두로 18일 오후부터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게 된다. 시위진압을 위해 19일 저녁에는 공수부대가 지 마산에 급파되었으나 시위가 계속되자 20일 0시를 기해 마산, 창원 지역에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부마항쟁의 여파는 권력내부의 갈등과 균열로

이어졌다.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강경진압을 주장하는 차지철 경호실장과 온건대응을 주장하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이의 대립이 극심해진 것이다. 그리고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실장을 저격·살해함으로써 마침내 유신체제는 붕괴하고 만다. 긴급조치 9호로 상징되는 무지막지한 탄압은 권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고조시켜 결국 정권의 종말을 자초했던 것이다(오제연 2014, 209; 채백 2016, 207).

2. 신군부의 등장과 제5공화국 출범

10·26 이후 등장한 전두환 보안사령관 중심의 신군부 세력은 12·12 반란과 이듬해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로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전두환은 5월 31일 실질적인 내각 기능을 수행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신은 상임위원장을 맡으며 권력 인수를 명시화한다. 군인 18명과 관료 12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1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앞으로 제5공화국이 수행할 중요한 핵심 정책들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때 경제과학위원장을 맡게 된 인물이 당시 경제기획원 기획국장 김재익이었다.

김재익은 “전두환 정권의 경제 제갈공명”이었다(전자신문 12/07/27). 그만큼 두 사람의 만남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과학 분야에 있어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970년대 경제기획원의 소장 관료였던 김재익은 철저한 시장경제 신봉자이면서 전자과학기술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다. 70년대 중반 이후 박정희식 경제개발이 한계를 보이게 되면서 김재익은 기존의 수출주도 및 중화학공업 중심 경제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러나 번번이 박정희라는 거대한 벽에 막히고 주변에 그의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도 거의 없이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실의와 좌절에 빠진 김재익은 몇 차례 사의를 표했고 1980년 5월 하순경 사표가 수리된다. 그러나 바로 그날 국보위에 참여하라는 부총리의 지시를 받게 된다. 김재익은 국보위 참여를 고사하였지만 전두환은 막무가내로 그를 붙잡아둔다. 5공화국 출범과 함께 김재익은 청와대 경제과학수석에 임명되어 전두환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들을 설계하게 된다. 백완기(1994)의 평

전에 의하면, 그는 청백리로서 학과 같은 고매한 인품과 더불어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문제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이해시켜주는 탁월한 실력을 겸비했었다고 한다. 김재익의 재주에 매료된 전두환은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할 만큼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권한을 주었다(이장규 1991).

한편 김재익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선구적 비전을 가지고 있던 오명을 발탁한다. 그리고 오명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한국 정보통신혁명을 기획하고 진두지휘하게 된다(김정수 2000). 1980년 9월 김재익은 오명을 불러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밤새도록 허심탄회한 논의를 나눈다.⁹⁾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특히 전자·반도체·통신 등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이며 우리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의기투합한다. 제5공화국 출범 후 경제과학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오명은 전두환의 보좌관 출신이었던 또 한 명의 공학박사 홍성원과 함께 <전자공업 육성을 위한 장기정책>과 <컴퓨터 및 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그 핵심 내용은 반도체·컴퓨터·전자교환기를 3대 전략산업화하고 5년 이내에 전자부문의 생산 및 수출을 2.5배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 관료들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의 야심찬 계획을 허황되다며 비웃었다. 그러나 1981년 5월 김재익의 권유로 오명이 체신부 차관으로 가면서 청와대 경제팀의 구상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그 후 그는 무려 8년 가까이 체신부의 리더로 재직하면서 통신(전화)사업 운영전담조직인 한국전기통신공사(현 한국통신) 설립, 데이터통신 전담회사인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DACOM) 설립, 무선호출 및 이동전화 서비스 개시, 공중데이터통신 전용망 개통, 국산 전자식 교환기(TDX) 개발, 전국 전화 자동화 및 전화 1,000만 회선 돌파 등 굵직한 사업들을 완수해낸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2000년대 “세계 최고 IT 강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정보통신혁명의 초석이 다져지게 되었다(오정연 2006, 28).

9) 오명은 김재익의 경기고 후배이자 육사출신으로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컴퓨터 공학박사를 취득한 후 육사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있었다.

3. 정보화 정책의 추진과 성과

제5공화국의 여러 공과 중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긴 정책유산은 바로 정보화 정책이었다. 특히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기술 인프라와 정보 마인드 축적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인터넷을 수용하고 대중화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전자신문 12/09/17). 1983년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실에서는 “사회 전반의 전산화 촉진과 정보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구상한다(홍성원 1985, 55). 이 계획의 핵심은 공공기관 전산망을 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국방망, 공안망의 5대망으로 구성하고 2000년까지는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기간전산망을 구성·운영한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산업사회 건설에서 ‘산업고속도로’가 우선 건설되었듯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자”는 것이었다(홍성원 1985, 57). 이 사업을 전달할 기관으로 ‘국가기간전산망 조정위원회’가 1984년 6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다. 1986년 5월에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87년 7월에는 <국가기간전산망 통합 구축계획>이 발표된다.¹⁰⁾

이처럼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에 힘입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컴퓨터에 대한 마인드가 확산되는 한편 국내 정보기기 산업의 발전 역시 촉진되었다. 일례로 1980년대 말에는 당시 첨단 하이테크였던 PC를 생산하는 업체가 금성사, 삼성전자, 큐닉스, 삼보 등 40여 개나 되었다(한국전산원 1993, 66). 또한 정부는 1987년을 ‘정보 통신의 해’로 지정하고, 1989년에는 교육용 컴퓨터의 표준 기종을 16비트 IBM 컴퓨터로 확정함으로써 PC 대중화의 길을 터놓았다. 한편 1986년에는 데이콤(DACOM)에 의해 최초의 PC 통신 서비스인 ‘천리안’이 시작되었고, 1988년 시작된 ‘케텔(KETEL)’은 이후 ‘하이텔(HITEL)’로 개편되면서 PC 통신의 보급이 확대되었다. 또한 1986년에

10)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1987~1991년,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1992~1996년에 추진되었다. 1995년에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된다.

는 국내 인터넷이 처음으로 IP 주소를 할당받았고, 1987년부터는 ‘.kr’ 도메인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중 특히 교육전산망 사업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의 조기 확산·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한국전산원 2005, 40). 1987년 고시된 제5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개혁심의회(1987)는 교육정보화 방안의 골격으로 컴퓨터 교육의 기회 확대, 현직교사의 컴퓨터 연수 강화, 컴퓨터의 보급 및 컴퓨터 실습실 확보 등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통신은 문교부와 협정을 맺고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40억 원 규모의 컴퓨터와 교실망을 보급하였다. 그 결과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마지막 해인 1996년 말에는 학교별로 평균 32.6대의 PC가 보급되었다(교육부 1998, 65-66).

제5공화국 정부가 추진했던 정보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강국이 된다. 우리나라의 PC 보급대수는 1985년 고작 8천여 대에서 1995년에는 534만 대로, 그리고 또 2005년에는 무려 2,620만 대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인터넷 이용자 수 역시 1995년의 36만 명 수준에서 2005년에는 무려 100배나 늘어난 3,300만 명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다(오정연 2006). 2000년 9월에는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에 초고속망 보급이 완료되었고, 12월에는 전국 144개 지역에 고속·대용량의 광케이블 기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완료된다(한국전산원 2005). 그리하여 <표 2>와 <그림 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압도적 격차로 세계 1위를 기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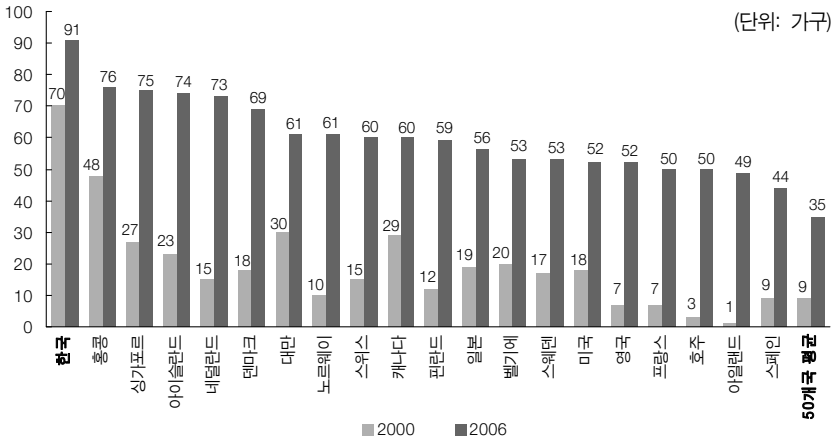
<표 2> 인구 100명당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및 국가별 순위(2002)

한국	홍콩	캐나다	대만	일본	미국
21.36	14.9	11.2	9.4	7.1	6.9
(1)	(2)	(3)	(4)	(10)	(11)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08)

<그림 3>

100가구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가구(2000/2006년)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08)

4. 정보통신혁명과 K-Pop

그렇다면 한국의 정보통신혁명과 K-Pop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상관성이 있는 것일까? 앞에서 보았듯이 오늘날과 같은 스타일의 K-Pop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였다. 그리고 1990년대의 우리나라 대중음악계는 두 가지 뚜렷한 변화가 기록된다. 하나는 댄스 음악이 발라드와 트로트를 제치고 확고한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음반시장에서 가요가 팽송을 물리치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변화가 가능했던 근본적 이유는 한국 댄스 음악의 질적인 향상에 있었다(윤재상 2018, 4).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1990년대의 댄스 음악이 글로벌 시장을 휘젓는 K-Pop으로 발전하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댄스 음악의 수준 향상이 가능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한 덕분이었다. 사실 댄스 음악의 발전은 컴퓨터 기반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신현준 2002, 229). 다른 장르에 비해 힙합과 같은 댄스 음악은 디지털 제작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이규탁 2011, 66). 기존 아날로그 악기보다는 컴퓨터 MIDI 시퀀싱과 리듬머신, 샘플러와 같은 디

지털 기기가 음악 제작의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된다(송현주 2011, 93).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감각의 리듬과 다양한 색채의 사운드를 창조해냈다(조일동 2017).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아날로그 악기 및 녹음장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완벽하게 재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조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리듬과 사운드는 유로 테크노, 힙합 등 새로운 댄스 음악에 적용되면서 최고의 매력을 발산하였다(권현우·박재록 2016, 229; 박선민 2017, 817). 그리고 1990년대 한국의 댄스 음악 제작자들이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게 되면서 예전에 촌스럽던 가요의 사운드 퀄리티가 외국 팝송 못지않은 수준으로 단번에 향상되었다. 즉 컴퓨터 및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댄스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 시장에서 주류로 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술적 토대로 작용한 것이다(송현주 2011, 94).

한편 음악 제작에 컴퓨터 기술이 널리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개인용 컴퓨터 및 인터넷망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이미 컴퓨터 및 컴퓨터통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음악 작업에 활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구축된 초고속인터넷망 덕분에 해외에서 개발된 최신 음악작업용 소프트웨어들을 손쉽게 불법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음악제작에 필요한 덩치 크고 값비싼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VST 및 VSTi 기술의 보급 확대는 가난한 젊은 음악인들에게 최상의 무기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¹¹⁾ 이처럼 최신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의 접근이 보편화됨에 따라 음악 제작도 예전보다 훨씬 쉽고 용이해졌다(송현주 2011, 93). 거창한 스튜디오 없이 노트북 한 대로도 음악작업이 가능해지고 홈 레코딩이 보편화되면서 수많은 “베드룸 프로듀서”들이 등장했다(나도원 2011, 319).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아진 대중음악계의 경쟁은 더

11) VST란 Virtual Studio Technology의 약자로서 음악 제작에 필요한 녹음 스튜디오의 각종 장비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재현하는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VSTi란 Virtual Studio Technology Instrument의 약자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가상악기를 의미한다.

욱 심해졌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의 댄스 음악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나갔다(이우용 1996, 195). 여기에 더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 환경 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SNS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거침없이 글로벌 음악시장에 도전하였다. K-Pop과 BTS의 성공은 바로 그렇게 얻어진 열매인 것이다.

V. 맺는 말

1. 연구의 요약: 긴급조치 9호에서 BTS까지

이 논문은 정책의 나비효과라는 관점에서 1975년의 긴급조치 9호가 2018년 BTS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져오게 된 과정을 추적하였다. 정책의 나비효과란 간단히 말해서 정책이 초기 사건이 되어 격발된 나비효과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어떤 특정한 문제를 겨냥해서 수립된 정책이 먼 훗날 원래의 문제와는 별 상관없는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조치 9호의 나비효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갈래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하나는 가요계에서 포크와 록이 강제로 퇴출당함으로써 댄스 음악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된 환경이 조성된 것이었다. 긴급조치 9호로 촉발된 대중 음악에 대한 무지막지한 탄압은 특히 당시 청년문화의 중심에 있던 포크 가수들과 록 밴드들에 집중되었다. 기성세대의 트로트와는 달리 퇴폐와 저항의 상징이었던 포크와 록은 유신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을 풍미하던 포크와 록이 정부의 탄압으로 강제 퇴출되어 무주공산이 된 가요계에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은 댄스 음악이었다. 댄스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나게 춤추도록 흥을 돋구어주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가 들어설 여지가 아예 없었던 댄스 음악은 군사정부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자유롭게 끼를 발산해나가던 댄스 음악이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BTS와

같은 K-Pop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 다른 갈래는 유신정권의 종말로 정권을 잡게 된 신군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정보화 정책의 성과(정보통신혁명)가 댄스 음악의 현격한 수준 향상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긴급조치 9호라는 정치적 폭압은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키운 끝에 결국 유신정권의 자멸을 초래한다. 절대 권력자의 갑작스런 죽음이라는 혼란 속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새로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권력자에 의해 기용된 김재익, 오명, 홍성원 등에 의해 전자·반도체·정보통신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야심찬 정책구상이 추진된다. 정보화 정책의 열매였던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해 보편화된 컴퓨터·디지털 기술은 댄스 음악의 질적 수준을 크게 도약시킨 비장의 무기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Pop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2. 연구의 함의와 한계

이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의 나비효과 개념은 정책의 미래 성과를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임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수립 단계에서 보다 광범위한 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한승준·이용모 2016). 2014년 3월 시행된 문화기본법 제5조 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히 문화·예술 영역은 문화와는 별 관계가 없는 다른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기 쉽다. 즉 문화·예술은 문화정책 이외의 다른 부문 정책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와 관련 없는 정책이 문화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배관표·최정민 2017, 222). 물론 나비효과라는 개념 자체가 정책의 미래 파급효과에 대한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그냥 손 놓고 눈 감아버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양한 시점에서 검토하는 브레인 스토밍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정민·박지혜 2017).

한편 나비효과라는 개념은 이 논문의 핵심 개념이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한계가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의 내용은 엄밀히 말해 과학적인 인과관계 분석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서술 혹은 스토리텔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나비효과라는 개념 자체가 엄격한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과학적 용어라기 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은유적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긴급조치 9호 이전의 온갖 역사적 사건들(예컨대 5·16 쿠데타나 6·25 전쟁 등) 혹은 긴급조치 9호 이외의 다른 수많은 정책들(예컨대 방송정책이나 대학입시정책 등) 역시 오늘날 K-Pop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은 접근방법이 전혀 유용하지 않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오히려 나비효과 개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여러 종류의 나비효과식 해석들을 제시해보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검토한다면 자의적 해석이라는 문제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일한 사례를 두고 기존의 전형적인 사회과학적 연구와 나비효과식 스토리텔링 연구를 진행한 후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쟁이 활성화된다면 그만큼 학문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최초투고일 : 2019. 4. 27

논문심사일 : 2019. 5. 7

게재확정일 : 2019. 6. 5

www.kci.go.kr

참고문헌

- 강준만. 2015. “강준만의 이론으로 보는 세계.” 『인물과 사상』 2월호, 37-62.
- 강 현. 1998. “대중음악에 대한 극악한 편견 속에 아무런 처방없는 불투명한 유통구조.” 『문화예술』 228호, 27-30.
- _____. 2015. 『전복과 반전의 순간: 강현이 주목한 음악사의 역사적 장면들』. 파주: 들베개.
- 고정민·박지혜. 2017.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문화경제연구』 20권 1호, 51-80.
- 교육개혁심의회. 1987. 『교육개혁 종합구상』. 교육개혁심의회 최종보고서.
- 교육부. 1998. 『1998년 교육정보화 백서』. 서울: 교육부.
- 국가기록원. 2019. “금기와 통제 그리고 자율: 시대별 금기와 자율(1960~1970년대).” <http://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taboo1970.do> (최종검색일: 2019/05/25).
- _____. 2019. “금기와 통제 그리고 자율: 금기와 통제 그리고 자율: 주요이슈 - 대중가요.” <http://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kindOfTaboo04.do> (최종검색일: 2019/05/25).
- 권현우·박재록. 2016. “한국 대중음악에서의 전자악기 수용 연구: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제51권, 211-233.
- 김경호. 2000.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정치사적 의의.”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권 1호, 1-21.
- 김상우. 2012. 『스트리트 댄스: 현대 대중 무용의 역사』. 서울: 좋은땅.
- 김수경. 2011.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시대.” 『대중음악』 제8호, 126-154.
- 김영아. 2008. “1990년대 이후 한국 대중음악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인문콘텐츠』 12권, 159-175.
- 김은경. 2010. “박정희체제의 지배양식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음악정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김정수. 1999. “스크린쿼터와 만따라: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개입과 문화산업 경쟁력에 관한 시론.” 『한국행정학회보』 제33권 3호, 195-213.
- _____. 2000. 『한국의 정보통신혁명: 오명의 리더십 연구』. 파주: 나남출판.
- _____. 2002. “한류 현상의 문화산업정책적 함의: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해외진출과 정부의 정책지원.” 『한국정책학회보』 11권 4호, 1-21.
- _____. 2016. 『정책학 입문』. 고양: 문우사.
- 김 진. 2008. “1990년대 서태지가 한국 대중음악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편의 음악&오디오. 2019. “1975년 1편: 록-포크 음악을 중심으로.” <https://blog.naver.com/kimkwmy/220820963003>(최종검색일: 2019/05/25).
- 김현정. 2007. “미디어의 발전이 한국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찬. 2015.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 1960~1970년대 대중음악의 결정적 장면들』. 서울: 알마출판사.
- 김홍중. 1997. 『한국 음반산업 연구』.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나도원. 2011.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대중음악.” 『황해문화』 제73호, 316-323.
- 뉴스젤리. 2014. “두구두구 가요톱텐, 영예의 1위는?” 『뉴스젤리』(11월 18일). http://contents.newsjel.ly/issue/gayo_top10(최종검색일: 2019/05/25).
- 문옥배. 2004.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 서울: 예술출판사.
- 문화관광부. 2001. 『문화산업백서』. 세종: 문화관광부.
- _____. 2003. 『문화산업백서』. 세종: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07. 『문화산업백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선민. 2017. “디지털 매체 수용에 따른 대중가요의 변화양상.” 『인문사회 21』 제7권 6호, 807-824.
- 박찬호. 2009. 『한국가요사 2: 해방에서 군사 정권까지 시대의 희망과 절망을 노래하다(1945~1980)』. 서울: 도서출판 미지북스.
- 배관표·최정민. 2017. “문화영향평가,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로서 발전 방향.”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1호, 203-225.
- 백완기. 1994. “김재익 론: 경제자율화의 기수.” 이종범 편. 『전환시대의 행다가: 한국형 지도자론』. 파주: 나남출판사.
- 선성원. 1993. 『8군쇼에서 랩까지』. 고양: 아름출판사.
- 송현민. 2013. “박정희 정권의 금지곡을 둘러싼 ‘감시와 처벌.’” 『문화과학』 제73호, 273-293.
- 송현주. 2011. “녹음기 발전에 따른 한국 녹음 스튜디오의 전환에 대한 시론.” 『대중음악』 제8권, 79-98.
- 신현준. 2002. 『글로벌, 로컬, 한국의 음악 산업』. 서울: 도서출판 한나래.
- 양삼석. 2012. “한국 군사정권하의 금지곡에 대한 작사가별 분석: 1970~80년대의 대중음악 통제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0권 1호, 233-257.
- _____. 2013. “음악의 정치윤리적 독해: 한국 권위주의 정권하의 대중가요 통제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23권, 221-248.
- 양성희. 1998. “가요에 밀려 해마다 음반매출 격감.” 『문화일보』(8월 4일), 18.

- 염대형. 2018. “19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성장과 확산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광수의 문화살림 블로그. 2015. “박진영, ‘춤에 미쳐 인생 조진 녀석.’” <http://oks.khan.kr/79>(최종검색일: 2019/05/25).
- 오정연. 2006. “한국의 정보화 정책 발전과정 및 성과.” 『NCA Issue Report』 제7호.
- 오제연. 2014. “1970년대 ‘유언비어’의 불온성.” 『역사문제연구』 32호, 187-226.
- 윤재상. 2018. “한국 댄스음악의 시대적 스타일 변화 연구: 리듬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8. “가요 반세기, ‘독립만세.’” 『국민일보』(8월 17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19980817000002602>(최종검색일 2019/05/25).
- 이규탁. 2011. “한국 힙합 음악 장르의 형성을 통해 본 대중문화의 세계화와 토착화.” 『한국학연구』 36호, 59-84.
- _____. 2016. 『케이팝의 시대: 카세트테이프에서 스트리밍까지』. 파주: 한올아카데미.
- 이수완. 2016. “케이팝(K-Pop), Korean과 Pop Music의 기묘한 만남.” 『인문논총』 제73권 1호, 77-103.
- 이영미. 1998. 『한국 대중가요사』. 서울: 시공사.
- _____. 2016. “유신 말기의 나비 효과.” 『인물과 사상』 제220호, 141-166.
- 이우용. 1996. 『PD 이우용의 우리 대중음악 읽기: 자유, 대중가요 그리고 뽕끼』. 서울: 창공사.
- 이장규. 1991.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전두환 시대의 경제비사』. 서울: 중앙경제신문사.
- 이충상. 2013. “한국 인기 대중음악의 시대별 특성 분석: 1960년대~2000년대 인기 가요 및 가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손우석. 2003. 『한국 대중음악사: 통기타에서 하드코어까지』. 파주: 리즈엔북.
- 전자신문. 2012a. “[이현덕의 정보통신부] <102> 전 대통령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전자신문』(7월 27일). <http://www.etnews.com/201207260194>(최종검색일: 2019/05/25).
- _____. 2012b. “[100대 사건_005]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기본 구상 발표 - 1983년 7월.” 『전자신문』(9월 17일). <http://www.etnews.com/201209110594>(최종검색일: 2019/05/25).

- 조일동. 2017.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대중음악의 변동에 대한 소고.” 『대중음악』 제19호, 8-28.
- 조정관. 2009. “한국 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권 2호, 73-98.
- 채 백. 2016.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와 개인의 언론 자유.” 『언론정보연구』 제53권 1호, 177-216.
- 천창훈. 2003. “한국힙합댄스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창현. 2010. “제도혁신과 경로의존성: Chaoplexity 이론적 관점.” 『GRI 연구논총』 제12권 3호, 81-110.
- 하태수. 2011. “전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1권 1호, 89-122.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류의 지속화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한국전산원. 1993. 『국가정보화백서』. 서울: 한국전산원.
- _____. 2005. 『한국의 정보화 정책 발전사』. 서울: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 『2008 국가정보화백서』.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승준·이용모. 2016.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5권 2호, 337-361.
- 한지수. 2009. “미8군소 무대를 통한 미국 대중음악의 국내 유입 양상.” 『음악과 문화』 제20호, 131-149.
- 홍성원. 1985. “국가경쟁력과 국가기간전산망.” 『정보과학회지』 3권 2호, 54-63.
- Arthur, W. Brian 1988. “Self-Reinforcing Mechanism in Economics.” Philip W. Anderson, Kenneth Arrow and David Pines eds. *The Economy as an Evolving Complex System*. Redwood City, CA: Addison-Wesley.
- BBC News. 2018. “BTS and K-pop: How to be the perfect fan.” *BBC News* (10월 9일). <https://www.bbc.com/news/uk-45800924>(최종검색일: 2019/05/25).
- Goldstein, Judith. 1988. “Ideas, Institutions, and American Trade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1): 179-217.
- Ikenberry, G. John. 1988.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G. John Ikenberry, David A. Lake and Michael Mastanduno eds. *The State and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orenz, Edward N. 1972. "Predictability: Does the Flap of a Butterfly's Wings in Brazil Set Off a Tornado in Texas?" 139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Thelen, Kathleen, and Sven Steinmo. 199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Sven Steinmo,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 Wolf, Charles. 1988. *Markets or Governments: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Cambridge: The MIT Press.

From Emergency Measure No. 9 to BTS: A Story of Gigantic Butterfly Effect

Kim, Jungsoo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

The world-wide popularity of BTS recently clearly illustrates the enormous success of K-Pop in today's global cultural market. This paper suggests that this amazing achievement of K-Pop is in fact a product of butterfly effect triggered by the emergency measure no.9 in 1975. The concept of butterfly effect implies that two events far off in time and/or in space could be causally related with each other. The emergent measure no.9 enforced in 1975 initiated a huge butterfly effect in two dimensions. The first was the massive crustal change in Korean popular music scene, and the second was the rapid IT revolution in Korea. These two events jointly contributed to the global success of K-Pop since the 2000s.

▪ **Keywords:** K-Pop, BTS, emergent measure no. 9, butterfly effect, IT revolution